

신문기사에 나타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대안 분석

김기영(지리교육과 3학년) · 심민정(지리교육과 3학년) · 장현아(지리교육과 3학년)

- 목 차 •
1. 문제제기
 - 1) 연구문제
 -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기사분석 결과
 - 1) 시각의 대립
 - 2) 사회지리적 관점으로 바라본 노키즈존에 관한 공간문제
 - 3) 공간적 대안
 3. 분석을 마치며
 4. 연구의 한계
 5. 기대방향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된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이 어떤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는지를 알아보고, 노키즈존 공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신문을 통한 ‘미디어 분석법’을 사용하여 신문기사에 나타난 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자본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절충안’으로 나뉘었으며, 이 외에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아가 노키즈존이 변화할 공간적 대안으로 ‘공간분화’, ‘에스키즈존’, ‘공간의 성격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키즈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독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편향된 시선을 없애고, 공간의 목적이 배제가 아닌 배려로 나아가는데 긍정적 힌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주요용어: 노키즈존, 배제, 공간, 차별, 시각, 자본주의, 페미니즘

1. 문제제기

우리는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가 익숙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no○○zone’은 개인의 조용함과 편의를 위해 공간을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No Kids Zone(이하 노키즈존)’이 유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0세~약13세)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신조어¹⁾이며, 2012년 ‘국물녀 사건’²⁾은 이 단어가 만들어진 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사건들의 공통점을 통해 노키즈존이 생겨난 원인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 둘째는 그런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아이를 감싸고만 도는 부모, 셋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일반 고객 이 삼박

1) pmg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인용

2) 국물녀 사건 2012년 2월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명 국물녀 사건으로 불린다. 초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 9살 난 아이가 식당 종업원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고 소개되었다. 하지만, 진상은 아이가 무방비하게 뜨거운 국을 들고 뛰어 다니다가 종업원에게 직접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아이의 부모는 언론을 왜곡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아이들과 극성부모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자가 맞아 떨어져 노키즈존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경험담이나 미디어와 언론에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노키즈존을 논문의 주제로 정했으며, 미디어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키즈존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 대안을 알고자 했다. 노키즈존이 눈에 띄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언론에서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경기연구원의 연구(이슈&진단, 2016)는 우리가 연구내용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연구문제

노키즈존은 ‘키즈’라는 연령대를 배제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노키즈존이 확산됨에 따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왜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는지 이해한다면, 노키즈존이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흐름을 분석하고자한다.

연구문제1.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에서 대립되는 사람들의 시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2.

‘노키즈존’에 대한 공간적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조사의 문제점과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미디어 분석법을 통한 기사자료의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속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노키즈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중 단어의 사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반복하여 읽으며 분석할 수 있는 신문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사이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로,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며, 다른 포털사이트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빅카인즈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노키즈존’으로 검색한 결과 총 65건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내용에서의 연관성이 부족한 기사 19건을 제외한 4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사의 분석은 페인(2008)에 의해 구분된 사회지리학의 접근방법 중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등의 사회이론이 가지는 중요한 측면을 사회와 공간분석에 적용한 급진주의적 접근방법을 적용했다. 또한 한 집단의 의견을 변론하는 것이 아닌, 신문의 내용상의 논의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 기사분석 결과

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2가지의 표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표는 긍정과 부정의 시선으로 구분하였고, 두 번째 표는 특정 문장을 추출하여 기사 내용분석을 진행한 후, 문장의 문

맥과 특정 단어들을 기준으로 총 3가지 관점(자본주의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 절충안)으로 분류하였다. 자본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은 레이첼 페인에 의해 제안된 관점을 따랐으며, 이 두 가지 관점의 절충안을 새롭게 만들어 제시하였다. 시각의 대립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시선을 알 수 있으며,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어떤 담론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사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대안을 종합하여 3가지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앞선 세 가지 관점에 속해있는 문장 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 발견되었기에 ‘기사내용에 나타난 노키즈존에 대한 시각의 대립’<표1>로 정리하였다.

1) 시각의 대립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노키즈존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인 ‘찬성’과 부정적인 시선인 ‘반대’가 여러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46건의 기사의 대부분은 노키즈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주제로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1. 기사내용에 나타난 노키즈존에 대한 시각의 대립

구분	시각의 대립
긍정	·먹거나 쉬고 싶은 손님들은 두 손 들고 찬성<2017.09.15. 한국경제> ·‘조용히 쉬고 싶어서 카페를 찾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2017.09.08. 경향신문> ·노키즈존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 <2017.09.25. 매일경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많이 참고 이해했다”며 “방해받지 않고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2017.08.16. 세계일보> ·‘고객으로서 소란스러운 아이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2017.05.12. 서울경제> ·조용한 분위기와 아이의 안전, 인테리어 장식품 파손 방지 등의 이유를 들며 출입을 막아서는 업소가 늘면서 이를 반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2017.07.14. 부산일보> ·아이 없는 커플들은 ‘반색’ <2017.07.14. 부산일보> ·영업상 자유다.<2017.09.21. 제민일보> ·“노키즈존이 확대됐으면 한다.”<2017.10.15. 중도일보> ·“영업장의 옵션 중 하나”라며, “모든 곳이 노키즈존인 것도 아니고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문제없다.”<2017.08.01. 세계일보>
부정	·노키즈존은 공간을 통한 배제의 장치일 뿐이다.<2017.08.30. 한겨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단은 강제적 분리의 불쾌감을 갖게 한다.<2017.08.31. 한국경제>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설정해 기본권 침해다.”<2017.09.21. 제민일보> ·모든 아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데 출입금지는 과도한 조치다. <2017.08.01. 세계일보> ·아이가 잠재적으로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이다.<2017.10.01. 경향신문> ·기회도 안 주고 배척하는 것 같다.<2017.08.01. 세계일보> ·‘노키즈존은 비접한 단어고 원래 쓰고 싶었던 건 공중도덕 못 지키는 보호자 출입금지’라고 말했다.<2017.07.09. 경향신문>

·‘노키즈존’이 아동 혐오와 여성 혐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2017.07.09. 경향신문> ·노키즈존이 과잉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 중 46.6%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23.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017.11.08. 서울경제> ·한국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2017.07.08. 경향신문> ·가족단위로 여행 온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목격되는 등 부당한 처사다.<2017.09.21. 제민일보> ·‘당당해야 할 엄마들까지 눈치가 보이고 위축이 된다.’ <2017.08.31. 경남신문> ·요즘 핫하다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하지만 노키즈존이라 못 가는 게 속상하다.<2017.09.25. 매일경제> ·‘에 있는 게 잘못이냐’,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더니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냐’며 기분 나빠하는 부모들도 많다.<2017.09.17. 한국경제> ·‘출산은 애국’이라며 아이를 낳으라더니, 낳아서 키우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란다.<2017.09.19. 서울신문>
--

<표 1>은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와 부정으로 바라보는 기사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은 노키즈존 확산에 대해 ‘찬성’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자녀가 없거나, 휴식을 위해 가게로 찾는 고객들의 주장들을 대변하고 있다. 반대로,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은 노키즈존 확산에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키즈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자신의 편의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한다.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사람들 중 일부는 카페나 음식점을 지친 몸을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다. 또 다른 일부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sns에 올라온 노키즈존 카페나 식당만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찾는 행위로 해석 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국물녀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가게에서는 손님뿐만 아니라 업주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업주들은 아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게들은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키즈존을 설정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가게들 또한 노키즈존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막고자 한다.

반대로 부모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피해를 가지고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노키즈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부모들 또한 일반고객과 업주의 권리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보장의 문제 외에도 노키즈존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배제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아이들이 배제되면서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같이 배제된다. 노키즈존은 주로 젊은 층들이 다니는 도심의 변화가 거리에서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변화가 아닌 주변지역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중심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 중에서도 아이 양육의 주체인 엄마들은 아이를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 ‘배제’의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접하는 예비 엄마들에게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한국의 현실에 반해 노키즈존과 같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배제되는 공간의 확산은 출산의 주체가 되는 젊은 여성들의 출산동기를 낮

추는데 작용한다. 하지만 아이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 확대되는 것과 출산율이 관계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 “모든 곳이 노키즈존인 것도 아니고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문제없다.” (2017.08.01. 세계일보)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노키즈존이 확산됨에 따라 키즈존 또한 확대가 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분석을 통해 공간사용에 대해 사람들의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개인의 생활환경이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어느 쪽이 옳다고 결정지을 수 없다.

2) 사회지리적 관점으로 바라본 노키즈존에 관한 공간문제

우리는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의 문제를 좀 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키즈존 관련 기사내용을 사회지리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표2. 참고) 자본주의적 관점은 노키즈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자본과 매출에 연관 지어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페미니즘적 관점은 노키즈존이 발생한 뒤 나타나게 된 사회적 문제를 중점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절충안에서는 앞서 나온 관점들의 합의점과 대안 등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사회지리적 관점으로 구분한 노키즈존 관련 기사내용

관점	기사 내용
자본주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2017.10.15. 중도일보> ·조용히 식사와 차를 마시는 걸 원하는 소비자 때문에라도 노키즈존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2017.10.15. 중도일보>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 한다.’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22.8%에 불과했다.<2017.08.28. 세계일보> ·일부 외식업체에선 오히려 어린이와 학부모 손님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2017.08.28. 세계일보> ·매장을 찾는 모든 소비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사의 소중한 고객<2017.08.28. 세계일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2017.08.30. 한겨레>
페미니즘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2017.09.18. 한국경제> ·애 데리고 가는 게 죄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어 죄인처럼 행동하게 된다. 민폐맘<2017.08.31. 경남신문> ·유모차 끄는 엄마들에겐 ‘문전박대’의 다른 말이다.<2017.08.31. 경남신문> ·애 방치 맘충<2017.08.31. 경남신문> ·아이 몫의 공짜밥이나 서비스 음식을 요구하는 ‘해주세요. 맘충’<2017.08.31. 경남신문>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도 일조한다고 생각한다.<2017.09.17. 한국경제> ·엄마-맘 명칭 뒤에 별레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아이 엄마를 비하하는 데에는 이런 일부 개념 없는 부모들의 문제행동도 일조했다고 봐야한다.<2017.09.17. 한국경제> ·여성 양육자들은 함께 배제된다. <2017.07.09. 경향신문> ·갈등의 핵심적인 성격은 육아를 둘러싼 갈등이다.<2017.08.30. 한겨레> ·노키즈존이 겨냥하는 타자는 다름 아닌 ‘맘충’이며, 맘충은 육아전담자로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혐오 발화다.<2017.08.30. 한겨레> ·맘충논란이 심화되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입장이 불가능한 ‘노키즈존’도 생겨났다.<2017.07.06. 서울신문>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통해 느낀 불쾌감이 온라인공간을 통해 공유되면서 편견이 강화된 것 같다.<2017.07.06. 서울신문> ·엄마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소수자가 된다.<2017.07.06. 서울신문> ·맘충=진상이라는 전제<2017.08.27. 한겨레> ·맘충과 ‘개념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분리하는 것도 가짜프레임이고, 노키즈존은 개념맘이 아닌 맘충만을 막는 장치라는 설정도 가짜죠<2017.08.27. 한겨레> ·키즈카페 밖에 갈 수 없는 엄마들 엄마가 되면서 사라져 버리는 나<2017.08.27. 한겨레> ·나는 없어지고~엄마만 남습니다.<2017.08.27. 한겨레> ·엄마가 잃은 것<2017.08.27. 한겨레>
결충안	·유아 동반 여행 시 각종 관련 서비스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다.<2017.11.01. 한국경제> ·조용하게 매장 서비스를 누릴 ‘손님의 권리’와 아이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그 손님들의 권리를 지켜줄 ‘사장의 의무’는 보호돼야 한다.<2017.08.31. 경남신문> ·영업장 안에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구별<2017.10.15. 중도일보>

먼저, 자본주의적 관점이다. 자본주의 관련 뉴스는 주로 ‘매출’, ‘영업의 자유’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매출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을 운영”(2017.10.15. 중도일보) 식의 표현은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을 매출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 손실의 주요 요인인 아동을 공간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본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2017.08.28. 세계일보)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2017.08.30. 한겨레)라는 표현은 노키즈존이 차별의 공간이 아닌, 영업의 공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영업공간을 노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동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주(가게주인)의 권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반대로 “오히려 어린이와 학부모 손님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쳐”(2017.08.28. 세계일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의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으로 인해 생겨난 배제의 현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배제의 대상인 아동을 위한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배제의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이 사업가의 손실방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노키즈존과 반대되는 공간(예스키즈존³⁾ 등을 창조하여 노키즈존이라는 배제현상을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페미니즘적 관점의 기사를 분석한 것이다. 페미니즘 관련 기사에는 ‘맘충’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였다. 맘충은 맘(mom)이라는 단어에 벌레 ‘충’을 붙인 말로, 등장 초기에는 단순히 자기 자식만 감싸고도는 개인주의적이며 무개념 엄마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약자에 속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주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여성의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간차별의 대상을 여성에게 맞추어 표현하고 있다. “맘충논란이 심화되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입장이 불가능한 ‘노키즈존’도 생겨났다.”(2017.07.06. 서울신문)

3)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생겨난 공간으로, 아이를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는 카페, 음식점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스키즈존에는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놀이방들을 구비하고 있어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마음 놓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의 표현을 통해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차별 문제의 시작점을 맘충에 맞추었으며, 문제의 주체를 여성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맘충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성혐오의 분위기가 생겨났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여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성배제의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애 데리고 가는 게 죄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어 죄인처럼 행동”(2017.08.31. 경남신문)의 표현은 자녀를 둔 모든 엄마를 맘충이라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고, 사회에서 여성 혐오의 분위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혐오의 분위기로 인해 ‘괜히 주눅이 드는’ 엄마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분위기가 여성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스스로 제한을 두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문전박대의 다른 말”(2017.08.31. 경남신문)의 표현은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엄마들에겐 문전박대라는 용어로 통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의 공간배제가 ‘문전박대’라는 말처럼 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키즈존이 겨냥하는 타자는 다름 아닌 맘충”(2017.08.30. 한겨레)와 “여성 양육자들은 함께 배제된다”(2017.07.09. 경향신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통해 노키즈존으로 인해 생긴 아동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까지 확산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제를 여성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약자가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엄마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소수자가 된다.”(2017.07.06. 서울신문)의 표현을 통해 노키즈존의 논란 확산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성이 불리한 쪽으로 이끌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그로 인해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키즈존에 의한 배제의 주체를 ‘아동’이 아닌 ‘엄마인 여성’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공간배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즉 ‘엄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나타난 두 가지 관점이 기사내용에서 반복되어 이어지다가, 2017년 후반부에 갈수록 두 가지 관점의 절충안이 나타난다. “유아 동반 여행 시 각종 관련 서비스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다.”(2017.11.01. 한국경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유를 가지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조용하게 매장 서비스를 누릴 ‘손님의 권리’와 아이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그 손님들의 권리를 지켜줄 ‘사장의 의무’는 보호돼야 한다.”(2017.08.31. 경남신문)의 표현은 서비스 사용이 보호되어야 할 손님의 권리, 그 손님들의 권리를 보호할 사장의 권리 등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다 보니 노키즈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보호하려는 행동의 결과가 노키즈존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이 꼭 부정적인 이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영업장 안에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구별(2017.10.15. 중도일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한 공간에 공존하게 하여 약자들의 공간 배제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한 절충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자본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의 열띤 공방 속에서 ‘공존하려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절충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의 권리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을 배제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가 합쳐져서 생겨나게 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아가 배제의 공간이 나타나지 않게 공간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여

‘노키즈존’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공간적 대안

앞선 관점의 분석을 통해 ‘배려와 여유’, ‘공간의 분화’라는 절충안이 제시되었다. 배려와 다름을 인정하는 공간적 방안으로 ‘공간적 분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것이 개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간을 나눔으로써 그 대안이 극명히 드러난다. 아래는 노키즈존 관련 기사에서 제시된 공간과 관련된 노키즈존의 대안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① 공간분화 공간의 분화는 ‘노키즈존’처럼 남을 배제시키며 분화된 공간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와 일반고객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나타난 새로운 공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1층 일반고객, 2층 어린이 동반 고객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말레이시아 항공은 비행기의 일부 구간을 ‘Quite Zone’으로 구성하였다. 기장의 한 카페 또한 1층 유아동반고객 2층 일반고객으로 층을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을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나누어 구성하여 서로의 상반된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었다.

② 예스키즈존 노키즈존에 반하여 생겨난 ‘예스키즈존’이 한편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노키즈존에서 배제된 대상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예스키즈존은 키즈프랜들리존과 같은 단어들로 대체되곤 하는데 이들은 ‘예스, 프랜들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고객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스키즈존에는 수유실, 보조의자, 놀이공간, 키즈메뉴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를 모두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차의 부모와 아이가 전용으로 타는 칸을 마련하는 것이나, 토이킹덤처럼 ‘키즈특화공간’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공간의 성격변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서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킨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노키즈존 해소를 위해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맘애킴즈 시네마’를 운영하고, 아이를 데리고 관람할 수 있는 ‘클래식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동반하고서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던 문화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일반적인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형태의 대안이 등장했다.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는 그저 ‘노키즈존을 없애자, 예스키즈존을 만들자’보다는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같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세다. 공간분화를 통해 모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이들 또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책적으로 공간의 성격을 바꿔줌으로써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긴다면, 육아의 힘듦에 아이를 방치하던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게 되고,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게 되고, 노키즈존만을 찾았던 사람들 또한 그 공간이 노키즈존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맘충 문제, 아이 방임의 문제, 다양한 권리의 보장문제 등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분석을 마치며

본 연구는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이들이 점점 이슈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편향된 생각을 개선하고 노키즈존이 나아갈 공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46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나뉘었다. 먼저 ‘긍정’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일반고객,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휴식을 위해서’, ‘서비스를 누릴 권리’, ‘잠정적 피해 차단’을 주장한다. ‘부정’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이들은 ‘기본권 침해’, ‘차별받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 ‘사회적 배제’를 이유로 들면서 노키즈존을 반대한다.

다음으로, 앞선 입장들을 자본주의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 절충안으로 구분 지었다. ‘자본주의적 관점’의 기사에서는 노키즈존을 ‘손실 방지의 수단’, ‘에스키즈존’과 같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시키는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매출에 연관된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페미니즘적 관점’의 기사에서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고 있다.’, ‘피해의 주체가 엄마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노키즈존 발생 뒤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절충안’은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강조’하고 모두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대안’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서는 ‘배려와 여유’보다는 ‘공간적 분화’라는 대안에 초점을 맞춰 서로의 상반된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분화’,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시킨 ‘에스키즈존’, 정책적으로 부모의 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간의 성격변화’를 제시했다.

4.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로는 일단, 연구진행의 전반적인 시간이 부족하였고, 조사를 시작한 당시의 기사수가 100건 이하였으며, 그마저도 관련도가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하고 나니 ‘46건’으로 매우 적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관점을 구분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틀이 없이 분석을 진행했다는 것과 두 가지 관점이 함께 나타나는 문장에 대해 관점구분을 진행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 또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대방향

노키즈존이 기사화되고 이슈가 됨에도 아직까지 이를 다룬 과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장 풍부한 자료인 기사를 분석한 우리 논문이 노키즈존이라는 사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노키즈존이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적 관점을 기사의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하여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된 시선을 없애고 다양한 관점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간이용방법을 통해서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층 없이 모두의 배려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과, 공간적 측면에서 더 이상 배제의 공간이 아닌 상호작용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제의 공간을 포용과 배려의 공간으로

로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개인주의가 완전한 사회에 노키즈존 이외에도 노OO존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지리학적인 시선으로 ‘차별이 사회적 삶속에서 분리 될 수 없이 서로 엮여있으며 그 각각은 다른 것을 고려해야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Arber and Ginn, 1955: 1, 페인 외, 2008에서 재인용)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해연, 강진숙, 2016,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60(6), pp.283-312 (31pages)

김도균, 2016,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 인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21, pp. 1-25.

레이첼 페인 외, 2008, 사회지리학의 이해, 이원호·안영진 역, 주식회사 푸른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2017-11-06 방문).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11&cid=43667&categoryId=43667> (2017-11-20 방문).

<신문기사>

경남도민일보, 2017, "청소년은 대견하거나 기특하지 않다", 06.28

경남도민일보, 2017, "[요리인]최석원 도로서 플레이트 총괄 셰프", 08.29

경남신문, 2017, "노키즈존", 08.31

경향신문, 2017, "맘충과 노키즈존", 07.09

경향신문, 2017, "이주민 토크 - 낯선, 낯선]집에선 가사·육아, 밖에선 음료 심부름...왜 꼭 여자가?", 09.08

경향신문, 2017, "혐오를 멈추세요", 10.01

국민일보, 2017, "어린이 사절(No Kids Zone)", 08.02

국제신문, 2017, "부산맘 육아고충 공유 '소통 프로젝트' 시동", 07.01

국제신문, 2017, "아이 울고 보챌다고 눈치보지 마세요", 09.07

대전일보, 2017, "NO' 키즈존에 뿔난 엄마들, 'YES' 키즈존 개장", 11.01

매일경제, 2017, "'카페에 아이는 출입제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25

매일경제, 2017, "문화데이터 공공저작물, 여행 만나 힘찬 '날개짓'", 10.23

부산일보사, 2017, "'노 키즈 존' 확산에 젊은 부모 화났다", 07.14

부산일보사, 2017, "'노키즈존(No Kids Zone)' NO! 뛰고 울어도 되는 클래식 콘서트", 07.31

서울경제, 2017, "'대학토론배틀7' 허지웅, 탁월한 토론 진행으로 맹활약", 02.06

서울경제, 2017, "'차별' VS '구별'...논란 뜨거운 '노키즈존'", 05.12

서울경제, 2017, "'키즈 마케팅'으로 틈새 공략하는 외식업계", 08.24

서울신문, 2017, "'워터파크서 아이 다친 사연 올리면 욕을 먹네요' 초보 엄마 올리는 '맘충 혐오', 07.06

서울신문, 2017, "노스쿨존·노폴리스존... 차별이나 권리냐", 08.04

서울신문, 2017, "노키즈존의 도래", 09.19

세계일보, 2017,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냐 '아이 예절 가르칠 기회 박탈'이냐", 08.01

세계일보, 2017, "일본서도 '노키즈존' 논란...아이 돌보지 않는 부모들", 08.16

세계일보, 2017, "'노키즈존' 확산...외식업계 '키즈 마케팅'으로 틈새 공략", 08.28

영남일보, 2017, "혐오를 혐오하다", 06.01

- 영남일보, 2017, “청소년시설 적극 활용하자”, 08.10
- 제민일보, 2017, “김 대신 상추로 엄마 정성 꼭꼭 채워”, 06.09
- 제민일보, 2017, “읍·면 지역 중심 노키즈존 음식점 등 ‘성업’”, 09.21
- 중도일보, 2017, “출산율 저하와 노키즈존”, 08.31
- 중도일보, 2017, “대전 외식업계, 노키즈존 ‘확산’”, 10.15
- 파이낸셜뉴스, 2017, “‘노키즈존’ 웬 말…‘키즈프렌들리존’ 뜬다”, 10.08
- 한겨레, 2017, “‘맘충은 노키즈존에서 나가라’는 당신께”, 08.27
- 한겨레, 2017, “‘노키즈존’에 대한 아재의 위치”, 08.30
- 한겨레, 2017, “못 본 사람들의 증언”, 10.27
- 한국경제, 2017, “이철해어커커, 단독 키즈존 갖춘 ‘왕십리뉴타운점’ 신규 오픈”, 01.17
- 한국경제, 2017, “‘어린이 환영’ 내세운 식음료업계…우린 웰컴 키즈존”, 08.24
- 한국경제, 2017,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09.15
- 한국경제, 2017, “‘노키즈존’ 당연한 권리인가 차별인가”, 09.17
- 한국경제, 2017, “‘노키즈존(No Kids Zone)’…양면성을 두루 살펴봐야”, 09.18
- 한국경제, 2017, “아르바이트생 ”내가 노키즈존 찬성하는 이유는“, 10.26
- 한국경제, 2017, “기내에도 ‘노키즈존’ 도입해야 할까?”, 11.01
- 한국일보, 2017, “아이는 출입금지 노키즈존 리스트 등장에 SNS 갑론을박”, 09.25
- 허럴드경제, 2017, “노키즈존?…‘예스! 키즈존’ 정용진의 이유 있는 실험”, 08.25
- MBC 뉴스, 2017, “유전자·체질량지수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결혼하더라 外”
- SBS뉴스, 2017, “‘아이는 안 돼요’…늘어나는 ‘노키즈존’”, 07.28
- YTN, 2017, “노키즈존? 소통 없이 벽부터 세우는 사회”, 08.11
- YTN, 2017,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지 말라는 노키즈존 카페들”, 09.27